

시온 주보

제2509호
2024년 6월 30일(나해)

연중 제13주일
(교황 주일)

하혈하는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

3세기말, 벽화, 62x64cm
베드로와 마르첼리누스 카타콤바
이탈리아 로마



입당송 | 시편 47(46),2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제1독서 | 지혜 1,13-15; 2,23-24

화답송 | 시편 30(29),2와 4.5-6.11-12ㄱ과 13ㄴ(◎ 2ㄱㄴ 참조)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제2독서 | 2코린 8,7.9.13-15

복음환호송 | 2티모 1,10 참조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복음 | 마르 5,21-43<또는 5,21-24.35ㄴ-43>

영성체송 | 시편 103(102),1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두려움에서 일으켜지는 믿음



윤웅렬 하상바오로 신부 | 등촌1동성당 부주임

“아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마르 5,22) 이 구절의 그리스어 성경 원문을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회당장들 가운데 아이로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와서...”가 됩니다. 회당장이라 하면, 비록 그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한 동네의 유다교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심지어 안식일에 치유의 기적마저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실상 많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청원하는 ‘회당장’ 아이로의 모습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아이로가 다른 이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죽여가는 딸을 살릴 분으로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길에 또 다른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열두 해 동안 하혈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피 흘리는 여성을 부정(不淨)하다 보았던 구약의 규정들을 상기해 볼 때, (레위 12장; 15장 참조)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이 접촉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삼중기도 강론(2021년 6월 27일)에서, “하혈하던 여인이 바랐던 예수님을 향한 이 접촉은, 이 병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부정함으로 인한 ‘고립’에서, 다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의 회복 또한 의미한다.”는 메시지를 주신 바 있습니다. 부정함의 율음 따위는 걱정

하지도 않으시고, 오랜 세월 피폐했을 그녀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광경을 힘겹게 지켜보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로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에게는, 하혈하던 여인이 치유되는 이 시간들이 결코 아름다운 기적의 순간으로만 여겨졌을 리 만무합니다. 그저 자신의 딸 아이가 죽어가는, 초조하고 야속한 시간이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기적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딸이 그 누구보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직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중인데, 집에서 딸의 죽음을 알려옵니다.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아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믿어라!”(마르 5,36 필자 번역) 예수님은 그의 두려움을 곧바로 알아보시고, 믿음을 북돋우십니다. 그렇기에 이후로 이어지는 아이로의 침묵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아이로는 예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속은 오죽했으련만, 그래도 주님을 보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시간을 당신 뜻에 따라 쓰시는 데에 감히 개입하지 않습니다. 두렵지만 오직 주님을 믿습니다. “탈리타 쿴!”(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 음성과 함께 딸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이로의 믿음 또한 두려움에서 일으켜 세워집니다.



하혈하는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

이 벽화에서 여인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눈길로 예수님을 올려다보며 그녀의 옷 끝의 한 가닥만을 조심스레 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그 옷 한 가닥을 잡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를 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용기를 넘치는 은총의 선물로 되갚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분께 용기 내어 믿음의 손을 뻗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화
해설

잃은 후에 얻은 것들



이경애 안젤라 | 상담심리사

나이 오십이 될 때까지 저는 가까운 이의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조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너무 어려서 실감하지 못했고, 문상을 다니면서도 죽음이 가깝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평소 병원을 멀리하셨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일상을 지켜오셨기에 오래오래 곁에 계실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발병과 죽음은 가족 모두에게 급작스러웠습니다. 추석 무렵 시작된 엄마의 투병은 다음 해 설 명절을 앞두고 끝이 났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에야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겪기 전에는 죽음이 아주 멀리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매일의 일상에 파묻혀 저 멀리 치워두고 잊어버린 물건처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부모님 연세가 있으니 좀 더 세심하게 건강을 살펴봐 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으시겠지. 아직은 아닐거야.’ 생각하며 다가올 일들을 외면하고 있었나 봅니다.

엄마가 곁에 계실 때는 엄마랑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도, 살갑게 대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언제 분위기 좋은 식당에 가자. 럭셔리 사우나도 가보자.’ 하며 미뤄두었던 일들이 많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는 ‘당연’한 존재인 줄 알았으니까요. 엄마가 그러했듯 하느님도 늘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고, 중한지 하느님과 가까워질 틈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아쉬운 게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주님, 주님.’ 부르짖곤 했죠. 저는 당신을 찾지 않아도 당신은 끝없이 사랑을 베푸시라고 생떼를 부리면서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음을 가급적 자주 생각하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는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 선물인지 잊어버리기 십상이니까요. 일

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하거나,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며 아까운 시간을 다 보내 버릴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동안 잘하고 오라는 하느님께서 내주신 숙제도 까맣게 잊고 엉뚱한 데 마음을 다 뺏길지 모릅니다.

요즘 저는 힘껏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고, 지금까지 제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엄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엄마 생각만 하면 여전히 눈물이 차오릅니다. 하지만 마냥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고 살아. 다 괜찮아. 네 비염도 내가 가져가.” 투병 중이던 어느 날 엄마가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엄마, 하늘 나라에서도 딸들이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뺨쓰고 있을지 모르겠다 싶어 웃음이 납니다. 이제 엄마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수호천사처럼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아 든든합니다.

엄마 덕분에 하느님과도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엄마는 죽음을 앞두고 제게 성당 열심히 다니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신자가 아니었던 사위와 손자도 신기하게 성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준 마지막 선물인가 봅니다.

한
것
교리

사제와 수도자는 왜 결혼하지 않나요?

독신 서약은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친다는 뜻을 담은 약속입니다.
평생 하느님과 교회만을 위해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보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 요즘은 결혼을 안 하거나 하더라도 아이는 안 낳는 부부가 늘어나는데,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무조건 아이 낳고 이혼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왜 교회가 개인의 결혼에 이렇게 간섭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사들을 살펴보면, 이는 현실적인 문제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일간지에 실린 설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39세의 미혼 청년 10명 중 4명은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꼽은 원인 중 경제 문제와 현실적 조건이 전체 응답 중 40%를 각각 넘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직장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70%는 결혼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8월 10일 자 서울경제) 결혼을 기피하는 흐름은 인간의 본성에 따른 필연적인 귀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우리 사회의 내부적인 문제들이 마땅히 결혼해야 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어떻게든 이러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진단하고, 이를 타파할 복음적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애쓰고자 합니다. 그것이 '시대적 징표'를 읽어야 한다는 교회 가르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혼인은 그 자체로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것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혼인은 하느님께서 직접 만드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이는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으로, 하느님은 혼인을 통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18한 4,12 참조) 교회가 결혼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꼰대'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길 바라는 간절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을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는 의미에

서 '가정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복음화'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하느님께 나아가며 기쁨에 차오르고, 그 기쁨을 남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가정 안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부부는 서로가 하느님을 향한 성덕에 나아가도록 도와주며,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여 신앙의 첫 스승이 되지요.

이와 관련하여 어느 교우분께서 사람이 꼭 결혼해야 할 이유라며 당신의 소신을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비운만큼 그 자리를 하느님으로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결혼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노력을 나뉘었다고 했었지만, 정말로 '안 내려놓으려야 안 내려놓을 수 없는' 경험은 결혼하여 배우자를 맞이하고 나서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배우자를 통해 자기 비움을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자녀가 생기고 나니 그간의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부모가 되어 자녀를 앞에 두고 보니, 진짜로 나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는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교회가 혼인의 특성이라고 설명하는 단일성과 불가해소성도 그 교우분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일성은 혼인하는 남녀가 서로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아야 함을 말하며, 불가해소성은 이 과정이 일정 기간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맺은 관계처럼 말이지요. 부디 우리 사회가 뒤로는 청년들의 결혼을 가로막고 앞에서는 결혼을 중용하는 '꼰대'가 되지 않길,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 꼰대 중 하나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라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질서 (창조 신학)



전인걸 요한보스코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지난 달 신학교 환경 동아리 학생들과 사진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예술과 전시에 대한 조예가 깊은 편은 아니지만 작가들의 메시지가 어렵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시각 장치들은 인간의 탐욕스러운 파괴 행위와 환경을 저버린 무관심의 대가를 표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감상은 전시 공간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진전에서 본 작품들이 보여준 모습은 환경 파괴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참혹하고 복잡한 여운이 꽤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왜 지구의 신음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일까? 어쩌면 위기 해결을 위한 방식과 접근 자체에서 아예 맥을 잘못 짚은 것은 아닐까?’

환경 전문가들은 제멋대로 자연을 개발하는 인간의 욕심이 기후 위기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위임받았다는 성경의 내용(창세 1,28; 2,15 참조)이 자연을 도구화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비판하기도 하지요. 인격적인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인간을 우상시하고 자연을 도외시하는 문화를 만들었으니, 인간과 자연 사이에 위계를 없애고 인간을 자연의 일부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창조 신학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

라 하느님이라는 사실이 그리스도교 창조론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권한에 대해 말하기 이전에 모든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65항 참조> 이러한 ‘신앙적 확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직 인간의 힘으로만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거나, 반대로 인간에 대한 적개심이나 비판론적 체념으로 정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전시회를 개최한 작가들이나 사진 속 환경운동가들은 터전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도 인간이고 그것을 살리고자 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할지라도 올바른 인간관이 무너지면 안 될 것입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제 곧 지구의 기후는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봉착한다고 경고합니다. 반복된 경고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무디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생태계의 보존과 쇄신을 이끄시는 하느님께 회심하고 책임감 있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느님께서 창조 질서 수호에 힘쓰는 인간의 활동과 협력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질서는 언제나 하느님의 주도권 아래에 있을 때 제 목적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교육 수강 안내

서울대교구 사목국

가톨릭청년성서모임

가톨릭청년성서모임은 '말씀으로 함께 모인 젊은이, 여러분이 교회'라는 표어 아래 그룹봉사자, 연수봉사자, 센터봉사자로 구성되어 성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평신도 공동체입니다. 교육 과정으로는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이 있으며 그룹공부를 마치면 해당 연수를 수료할 수 있습니다.

■ 문의: 02)764-6452 / www.godislove.or.kr

■ 수강 안내

	창세기	마르코	요한	탈출기
여름	7월 11일~14일 8월 8일~11일	7월 18일~21일	7월 25일~28일	8월 1일~4일
겨울	2025년 1월 2일~5일, 1월 9일~12일, 2월 6일~9일	2025년 1월 16일~19일		2025년 1월 23일~26일
직장인 창세기		직장인 탈출기		
가을	10월 5일~6일, 10일, 12일~13일	10월 19일~20일, 23일, 10월 26일~27일		
유럽 연수	대표 연수	그룹봉사자	연수봉사자	
창세기 7월 26일~29일 탈출기 8월 2일~5일	대학 8월 17일~18일 본당 12월 14일	교육 9월 7일 평정 11월 9일~10일	평정 12월 21일~22일	

서울대교구 공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가톨릭청년성서모임, 성서못자리, 성서백주간, 가톨릭성서모임, 바오로 교육관 성서모임, 바오로팔 성경학교, 베네딕도 성서학교, 여정 성경 공부-가톨릭 온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서울대교구 사목국

성서못자리

■ 그리스도교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공부하는 성경 프로그램

■ 교육 과정

- 1 정기 강좌: 신부님 강의와 나눔으로 이루어진 3년 과정의 강좌로 이스라엘 역사부터 시작하여 사도행전, 바오로서간, 복음서를 공부하는 과정
- 2 나눔터 과정: 본당 못자리 봉사자들과 나눔을 동반한 성경 공부
현재 서울교구 21개 본당, 수원교구 4개, 의정부교구 5개 본당에서 진행

■ 일정 및 참여 방법(2024년 하반기)

- 1 모집: 7월 29일~8월 25일(인터넷 접수), 9월 2일~23일(현장 접수)
- 2 인터넷 접수: <http://samok.or.kr/bibleseedbed/>
인터넷창 '서울대교구사목국' 검색(수강료 납부는 온라인으로)
- 3 문의: 02)727-2379 성서못자리 사무실

강좌	학기(주 1회 수업)	수업시간	수강료
명동 정기강좌(명동)	9월 2일~12월 9일	오전 10시 30분	8만원
나눔터 학교(출입생과 봉사자만)	매주(월) 15주간	(1시간 30분)	7만원
직장인 성서못자리(명동)	8월 28일~12월 11일	오후 7시 30분	8만원
청년 성서못자리(명동) 45세 이하 청년만	매주(수) 15주간	(1시간 30분)	5만원

서울대교구

성서백주간

■ 목적: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하느님 말씀을 영적 양식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 방법: 성경 전부를 121주간(약 3년)에 걸쳐 통독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10명 내외)을 이루어 각자 집에서 배분표에 따라 성경을 읽고(10~15장 정도, 도움책 활용) 매주 1회 주간 모임(1시간~1시간 30분)을 합니다. 이 모임에서 복습과 묵상나눔을 통해 그 뜻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생활화 합니다.

1 읽기 배분표에 따라 성경 읽기

2 주간모임 순서: 시작기도 · 복습 · 묵상 나눔 · 휴식 · 예습 · 마침기도

■ 주 교재: 성경, 도움책

■ 문의

- 성서백주간 본부(<http://cafe.daum.net/bible100weeks>)
- 010-3557-4410, 02)730-4410
- 각 성서백주간 본당 대표

영원한 도움의 성도수도회

가톨릭성서모임

■ 가톨릭성서모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행하면서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성서생활화 운동"입니다.

■ 교육 과목

- 1 성서사십주간: 1년 과정 성경 통독, 매주 1회 안내 강의
- 2 성서그룹공부: 성경 과목별 그룹 공부, 6~10개월
- 3 축복받은 성경읽기: 과목별 읽기, 과목당 3~4개월, 그룹별 읽기
- 4 마지막에서 두 번째 명상 (축복받은 노년 성경읽기)

■ 수강 안내: 전 과정은 본당별, 센터별로 개설됩니다. 안내를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 전 과정은 대면과 비대면(온라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흑석동 센터: 02)824-4363
- 정릉 센터: 02)2171-1672
- <http://biblemove.com>

살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바오로 교육관 성서모임

■ 교육 과목

- 성경 강좌: 신, 구약 본문 주해 중심
- 말씀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미술사와 함께 걷는 세계 교회사(근·현대사), 말씀과 음악으로 함께하는 행복 여정
- 본당 단체 피정 프로그램 운영: 금, 토요일 신청 가능(15명~40명)

■ 수강 안내

- 장소: 명동대성당 성모동산 뒤편, 바오로 교육관
- 수강료: 성경 강좌 8만원 / 인문학 강좌 12만원
※ 계좌번호: 우리 1005-002-675612 (재) 뽕뽕 수도원
- 접수 및 문의: 010-4229-7894 바오로 교육관
※ 접수일: 공지 이후 수시 접수(개강 후 2주까지)
※ 접수 방법: 입금 후 강의명과 이름을 문자로 남겨 주시면 확인 후 답변

■ 강좌 (강의 시간: 2시간, 총 12강)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반 10시	창세기 (대면·비대면)	마태오복음 (대면·비대면)	예언서 (대면)	요한복음 (대면·비대면)	본당 단체 피정
오후반 13시 30분	사도 바오로의 편지들 필리피서, 고린토 1·2서(대면)	미술사와 함께 걷는 세계 교회사 (근·현대대면)	말씀과 음악으로 함께하는 행복 여정 (정원 20명대면)		

성바오로딸수도회
바오로딸 성경학교

■ 이력당 단과 강의

- PC, 모바일 동영상 강의 / 수시 등록 / 개설 강의
- 문의: 02)944-0840~42

유다이즘과 그리스도교 공동 모태로서 신구약 중간시기	이진수 신부(마산교구)
교부들에게 배우는 성경해석 방법	변종찬 신부(서울대교구)
염철호 신부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염철호 신부(부산교구)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최광희 신부(서울대교구)
과학, 성경을 만나다 - 진화론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김도현 신부(대구대교구)
구약성경 300분(2024년 하반기 개강 예정)	김성기 신부(광주대교구)
신약성경 300분(성경을 옆에 놓고) (2024년 하반기 개강 예정)	오석준 신부(서울대교구)

■ 우편·이력당 정규과정

- 신구약 성경 입문 2년 / 중급 4년 / 성바오로신학영성 1년

■ 신입생 모집 기간: 11월~2025년 2월

■ 홈페이지: <http://uus.pauline.or.kr>

■ 문의: 02)944-0819~21

바오로딸 성경학교
큐알(QR)



투스팅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베네딕도 성서학교

■ 4년 교육 과정

	1학기	2학기
1학년	구약 입문, 모세오경	역사서
2학년	예언서	예언서, 성문서
3학년	신약 입문, 마르코 복음	마태오&루카 안내, 사도행전
4학년	바오로 서간	요한복음

- 1학기 3월 첫 주 해당 요일부터, 오전 10시~12시 30분(16주)
- 2학기 9월 첫 주 해당 요일부터, 오전 10시~12시 30분(16주)

■ 수강 안내 (2024년 - 2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교육 내용	역사서	예언서 & 성문서	마태오&루카 안내, 사도행전	요한복음
강사	김 예반젤린 수녀	김 예반젤린 수녀	고 요세피나 수녀	김 레나 수녀
개강일	9월 3일(화)	9월 6일(금)	9월 5일(목)	9월 4일(수)

■ 문의 010-9085-9722

■ 베네딕도 성서학교 카페: <http://cafe.naver.com/bbs3004>

■ 접수 장소: 투스팅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내 베네딕도 교육관 3층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16길 52)

■ 접수 방법: 개강 당일 현장 접수

예수의 가리파스 수녀회
여정 성경공부 & 가톨릭온

■ 2024년 2학기 '여정' 성경 공부

- 교육 과목: 구약 전체(구약 5학기), 신약 전체(신약 6학기)
- 9월 2일(개강)~12월 6일(종강), 원하는 부분, 요일 선택 · 수강비 7만원
- 수강신청 · 접수: 8월 18일(주일)~28일(수)

시간	월(9월 2일)	화(9월 3일)	수(9월 4일)	목(9월 5일)	금(9월 6일)
오전	10시~12시	루카 · 사도행전	성경통독 (신약-서간)	역사서 1 (여호~사무엘)	시서와 지혜서
저녁	8시~10시	루카 · 사도행전		역사서 1 (여호~사무엘)	요한복음서

- 문의: 02)525-7869, 010-7194-3780 여정성서교육관
다음 카페 - '여정 성경 공부' (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200m 5분 거리)

■ 가톨릭온(생활성서사 온라인 교육 | 수시 등록)

- 교육 과목: 성경, 교리, 영성, 심리 등(저자 · 역자 직강)

- 문의: 010-2697-1715(<http://catholicon.co.kr>)

클래스명	강사(교육 내용)
늘 푸른 성경 여정	김영선 수녀(구약), 박기석 신부(신약)
바이블 가이드	김효준 신부(구약~신약)
성경 본문 zoom	박병규 신부(공관 복음서 · 사도행전)
성경 본문 zoom	김혜윤 수녀(구세사편 1·2)
지혜 여정	김영선 수녀(역사서), 박형순 신부(예언서) 최종훈 신부(루카 복음서), 한재호 신부(사도행전)



로마 국제 젊은이 사목자 회의에서 2027 서울 WYD 초대 메시지 발표

이탈리아 로마에서 국제 젊은이 사목자 회의(International Youth Ministry Congress)가 개최되었습니다.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110개국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 대표 300여 명이 참여했으



며, 참가자들은 <시노드 청소년 사목: 새로운 리더십 스타일 및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 첫날, 정순택 대주교님은 2027년 서울WYD를 소개하고 전 세계 청년들을 초대하는 메시지를 발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2027년 서울에서 시노드 교회를 향한 여정 안에서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젊음을 몸소 체험하고 청년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2024.5.23.(목) - 2024.5.25.(토)



한국 문화의 밤 행사

2024.5.23.(목)

국제 젊은이 사목자 회의 첫날 저녁, 주교황청 한국대사관, 교황청립 로마 한인신학원,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이 주최하는 한국 문화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불고기, 김밥, 잡채 등의 한식 저녁 식사가 제공

됐고, 이와 함께 사물놀이, 진도북춤, 가야금 연주 등 다양한 전통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로마 한인 본당의 서하린 카타리나 어린이는 ‘범 내려온다’와 ‘홀로아리랑’을 불러 한국의 흥과 얼을 전했습니다.

젊은이 사목자들을 향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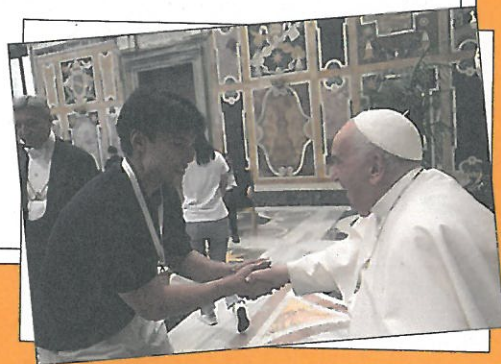
2024.5.25.(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젊은이 사목을 할 때 ‘작은 발걸음’, ‘단순한 말과 행동’, ‘공동체에서 축하와 기도의 순간’을 통해 청년들의 일상 속 여정에 동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오늘날 낙담하고 고립된 젊은이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며, 동반을 통해 젊은이가 ‘하느님은 사랑이

시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구원하신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등과 같은 인생의 근본적인 확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시노드적이고 개인적이며 진리를 지향하는 영적 식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젊은이들의 말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며, 그들이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자고 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인 ‘예수님은 살아 계시고 주님이시다.’는 메시지를 전하자고 독려하셨습니다.

“내년에 열리는 2025년 젊은이 회년 행

사와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WYD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대화와 활동 계획, 결정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자신이 교회 생활의 적극적이고 완전한 일부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또래에게 복음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오늘(6월 30일)은 '교황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서울주보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0년 7월 3일 이현중 야고보 신부(28세)
- 1950년 7월 5일 이순성 안드레아 신부(55세)
- 1950년 7월 7일 이어구 마티아 신부(53세)
- 1980년 7월 4일 김재문 미카엘 신부(26세)

예수 성심 성월 기도문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복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교구청 알림

7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7월1일(월) 11시, 명동성당 내 파밀리아채플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제51회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정기전: 전관
전시일정: 7월3일(수)~11일(목)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미사

때, 곳: 7월1일(월) 10시30분~11시30분, 가톨릭
회관 3층 /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1425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7월2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덕본당': 평양교구 관후리 본당
문의: 02)727-2420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 회비없음
때, 곳: 7월4일(목) 14시~15시, 문화관 2층 소성
당(포스트홀) / 집전: 김경진 신부(대만 선교)
문의: 02)727-2407, 2409

2024 이스라엘의 지혜문학 특강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성경 지참) / 강약: 조창수 신부
내용: 지혜문학(잠언, 욥기, 코헬렛, 집회서, 지혜서)
때, 곳: 7월4일(목)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문의: 010-8889-5425(문자) 성경통독 아카데미

순교자현양신심미사 및 합창단원 모집

- 1) 순교자현양신심미사(337회)
때: 매월 첫째주(화) 7월2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 문의: 02)2269-0413
- 2) 합창단원(성가대) 모집
대상: 성가를 좋아하는 62세 이하 교우, 매월 2
회 평일 오전 미사참례 가능한 분
연습: 매주(월) 19시, 가톨릭회관(명동)
문의: 010-3898-3408 단장

2025년 명동대성당 상반기 혼인 예약 안내

1월~6월 7월19일(금) 14시, 대성당 / 문의: 02)774-1784
낮 12시 성당마당 부스에서 추첨 순서번호표를
나눠드립니다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이중추첨, 양도목적 등 위반
적발 시 혼인예약이 불가합니다

7월~12월 2025년 1월~2월 중 추첨 예정(추첨 일정 별도 공지)

2) 혼인 가능 장소, 요일 및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 · 15시
파밀리아 채플	금요일	17시
	토요일, 주일, 공휴일	11시 · 14시 · 16시

3)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적사본 1부(신랑 ·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 · 카드 불가)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안내'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추첨 일정은 교구 및 본당행사로 변경될 수 있으
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향심기도 월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1만원

일반인	7월1일(월) 13시30분~16시30분
직장인	7월7일(일) 13시30분~16시30분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7171-9503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조리사·취사원 모집

근무: (월~금) 7시~14시 / 문의: 02)2235-4000
대상: 조리사(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1명, 취사원 1명
급여: 홈페이지(<http://yurak.or.kr>) 참조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여름캠프 보조지도자 모집

업무: 어린이신앙캠프 보조 진행
홈페이지(hanmaum84.com) 참조
문의: 031)840-0742 활동운영팀

인헌동성당 방호원(계약직) 모집 / 문의: 02)884-1581

대상: 신자로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분
업무: 시설관리, 전기, 방호, 미화, 화단정리 등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
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
서, 각종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7월20일(토)까지 이메일(andy9314@seoul.catholic.kr)
및 방문·우편(우 08797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48
길 78-2)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매월 둘째주(일)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상의 후 결정	상의 후 결정	010-9304-0295 채 세실리아 수녀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수녀원(전철 2호선 건대입구역)	010-7197-1390 효주 수녀

인준단체 알림

모임

토아올림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매주(화) 7월2일 12시30분~16시
 곳: 가톨릭회관 7층 / 강사: 배갑진 신부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노틀담 성소 침묵 피정(노틀담수녀회)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선착순 9명
 때: 7월19일(금) 20시~21일(일) 16시
 곳: 노틀담 수녀원(인천) / 문의: 010-3930-6730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때, 곳: 7월6일(토) 15시~18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천당에복을 갖추어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회비: 1만원
 때, 곳: 매월 둘째주(토) 7월13일 14시~18시, 구산성지
 찬양: 고영민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지혜의 샘 7월 피정 프로그램

곳: 지혜의샘(부천시 경인로 61-1) 5층 / 010-3248-9705
 1) 여름 성가정 피정: 7월8일(월) 10시~17시30분
 강사: 정병덕 신부, 서인석 신부, 한영임 회장
 2) 치유 대피정: 7월22일(월) 10시~17시30분
 강사: 김성기 신부, 이창진 신부, 한영임 회장
 2) 감사 찬양 피정: 7월31일(수) 10시~17시30분
 강사: 김성대 신부, 한덕훈 신부, 한영임 회장

피아골 피정 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피정 소록도	8월3일~5일
한국 수도원 순례	10월9일~12일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행정) / 010-3340-0201

하느님, 바람, 나(힐링 피정)	7월5일(금)~7일(일)
효소 단식	7월11일(목)~14일(일), 8월9일(금)~12일(월)
성경 완독	7월26일(금)~8월3일(토), 8월23일(금)~31일(토)

가정선교회 7월 피정·미사

때, 곳: 12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성가정 영성 피정	7월3일(수) / 박재찬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피정과	7월6일(토)
성모신심 첫도 미사	김종섭 신부, 이현주 회장
치유 회복을 위한	7월20일(토) / 박현민 신부
찬양 피정	찬양: 고영민 부회장 외 8명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7월5일 10시~15시30분
대침묵 피정	8월16일(금)~18일(일)
다네이영성수련 피정	8월22일(목)~25일(일), 10월25일(금)~27일(일)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경당
단체 피정(자체 위탁) / 개인 피정 가능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d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7월1일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 문의: 02)338-3793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 문의: 02)753-8765

말씀: 박민우 신부 / 찬양: 최준익, 이경수
 때, 곳: 7월7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제21회 가톨릭 대안 좋은학교 연수

대상: 'Quality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
 때, 곳: 7월20일(토)~21일(일) 1박2일, 양업고등학교
 접수: 7월9일(화)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회비: 8만원(식비 포함) / 문의: 043)260-507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2024년 후기 2차

신·편입생 모집 / 문의: 02)3147-8781
 사회복지학 석사과정(4학기) / welfare.catholic.ac.kr
 학과: 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 노인복지, 정신건강복지
 접수: 7월7일(일)까지 / 면접: 7월18일(목)
 곳: 성의회관(서초구 반포대로 222 / 서울성모병원 내)

도림동교육센터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오후스데이)

대상: 재학 중인 남학생 / 홈페이지: dorimdongcenter.org
 내용: 가을학기 기숙사 학생 모집, 가족과 공부
 분위기, 여러 교육 프로젝트(문화·봉사활동·문화
 ·운동·국제교류 등), 개인방+개인화장실
 운영·영성지도: 동아시아국제교류재단·오후스데이
 문의: 010-2554-1507(dorimdongcenter@gmail.com)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멀티미디어학전공

2025학년도 1차 모집 / 문의: 02)705-8678
 원서접수: 7월22일(월)~31일(수) / 전형일: 8월3일(토)
 입학설명회: 7월27일(토) 14시 / 모집: 메타버스엔터
 테인먼트, 게임그래픽·만화애니메이션, 게임 개발
 서강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미디어공학사) 수여, 본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입학시 장학혜택 제공, 학점
 은행제 교육기관으로 3년 이내 학사취득 가능
 홈페이지: www.soganggame.ac.kr

에파타성당 수어교실 개강

회비: 12만5천원(6개월 과정) / 문의: 02)995-7394

개강	에파타성당	명동대성당 범우관 408호
7월10일(수)	13시30분~15시	
7월11일(목)	20시~21시30분	19시~20시50분
7월12일(금)		19시~20시50분

모집

서울대교구 어린이 합창단 '마니파켓'에서 함께 노래할 어린이들을 기다립니다

대상: 초2~6학년 가톨릭(예비)신자
 오디션: 자유곡 1곡 및 음감테스트 / 02)338-7830
 때, 곳: 7월23일(화) 19시30분, 청년문화공간
 JU(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 연습: 매주 (화) 18시
 ·(일) 13시~둘째주 명동대성당 10시 미사
 접수: 홈페이지(www.yju.or.kr) 게시판·자료실 참조

미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7월5일(금) 14시~16시 / 문의: 02)929-2977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켈기도, 미사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7월6일(토)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3층

콘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때: 7월6일(토) 10시 /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곳: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 문의: 02)793-2070

군중후원회 월례미사·특강

강사: 오형훈 신부 / 문의: 02)776-0457
 때, 곳: 7월1일(월) 14시, 국군중앙주교좌성당(전철
 4호선 상왕산역 1번 출구, 용산우체국 뒤 왜고개성지 내)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성서인문학 강좌

대상: 후원회원,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있는 분
 때, 곳: 7월3일(수) 14시(미사)·15시(강좌), 명동대성
 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
 문의: 02)3673-2525 미사, 02)3673-2528 강좌

안내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물자비의수녀회)

2024년 가톨릭성가대 코랄콘서트 예선 접수

대상: 전국 성가대성가대 / 8월12일까지 접수
 예선: 가톨릭 성가대 1곡 음원 접수 / 본선: 11월
 문의(접수): 010-5245-2848 사무국장 심준보 / 주최:
 서울대교구성음악위원회·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종림동약현성당 2025년 1~3월 혼인예식 추천

때: 7월14일(일) 15시 / 문의: 02)362-1891
 준비물: 교적 사본, 예약금 100만원 / 주의사항-2025년
 4월~12월까지 예약은 10월 중에 추천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2025년 상반기 역삼동성당 혼인미사 접수

접수: 7월13일(토) 9시 / 온라인 선착순 접수
 혼인미사 희망 월: 2025년 1월~6월
 혼인미사 시간: (토) 12시·15시 / 02)553-0801 사무실
 곳: 전철 2호선 역삼역 1번 출구, 도보 7분
 자세한 사항은 역삼동성당 홈페이지(www.
 yscatholi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름철 추천 도서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되리라.”
(시편 1,3)

신간

성모님과 함께하는 묵주의 9일 기도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엮음



대형 3천5백원



스프링형 4천5백원



접이식 2천5백원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성모님은 이 시련을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신간



자녀를 위한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100일 자녀 축복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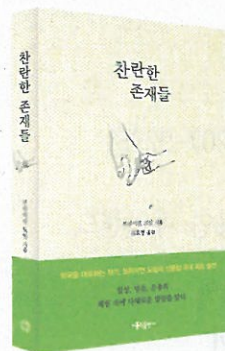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엮음 | 1만2천원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선물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자녀가 자라도록
축복을 청하는 노트

2024
NEW ver.

여름철 추천 도서



찬란한 존재들

브라이언 도일 지음 | 1만9천원

일상, 믿음, 은총의 체험 속에 담긴
다채로운 빛깔들

소박하지만 따뜻한 순간을 노래한
신앙 에세이

여름철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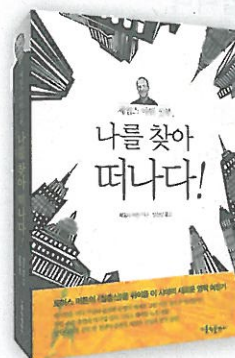
혼자서 마음을 치유하는 법

홍성남 지음 | 1만2천원

스스로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 지침서

나를 사랑하게 되는 순간
진정으로 찾게 되는 행복

여름철 추천 도서



제임스 마틴 신부, 나를 찾아 떠나다!

제임스 마틴 지음 | 1만3천8백원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고백록》을 잇는,
현대인의 시선으로 쓴 영적 여정기!
사제가 되기로 결심한 한 청년의
진짜 행복에 대한 이야기



가톨릭출판사

구입문의 02) 6365-1888 ·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

www.catholicbook.kr ▼





제2시대문 · 미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 임 신 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부주임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택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청진하시!”

◎ 예비신자를 초대합니다.

대상 : 예비신자 · 외딴교우 · 첫영성체준비자

추가모집 : ~ 7월 21일(주일)

교리시간 : 주일반 오전 9시~10시 / 304호

수요반 오후 7시~8시 / 304호

※ 예비자 인도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연령회 미사 : 7월 2일(화) 오전 10시

매월 첫번째 화요일 10시에 연령회 미사(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성모신심미사 : 7월 6일(토) 오전 10시

◎ 유아세례 : 7월 7일(주일) 오후 4시 30분

◎ 반디주일학교 여름캠프

일시 : 7월 20일(토)~21일(주일)

장소 : 강화 도래미마을

회비 : 가정당 40,000원

문의 : 바오로비안네 교감 (010-7207-9295)

◎ 연희동성당 복사캠프

일시 : 7월 25일(목)~26일(금) / 용인 에버랜드

대상 : 연희동성당 복사단

문의 : 부주임신부 (010-3854-1317)

◎ 초등부주일학교 성당 마당 물놀이

일시 : 7월 27일(토) 오후 2시 / 성당마당

준비물 : 수영복, 물총, 타올, 가운

문의 : 로사 교감 (010-7274-9443)

※ 7월 27일(토) 어린이미사는 오후 1시입니다.

※ 성당 마당에 차량 출입을 통제합니다.

◎ 초등부주일학교 여름 가족캠프

일시 : 8월 9일(금)~11일(주일) / 예담숲

문의 : 로사 교감 (010-7274-9443)

◎ 2024년 3분기 전신자 영성서적 읽기

1. 선교지에서 읽는 바오로서간

2. 마음이 일러주는 하느님

3. 치유하는 경청

※ 도서를 구입하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 7월 6일(토)

◎ 노년분과 바오로 시니어대학 안내

코로나 이후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계신
어르신을 초대합니다.

대상 : 65세 이상 남·녀 어르신

모집시기 : 1학기(3월), 2학기(9월)

강의 : 매주 금요일 10시미사 후 11시부터 / 소성전

점심시간 : 12시 ~ 오후 1시 (점심제공)

동아리활동 : 1시부터 취미반 활동(계속 추가예정)

- 노래교실, 요가, 탁구, 하모니카, 미술, 조물조물

회비 : 월 1만원 (입학시 입학금 1만원)

문의 : 세실리아 분과장 (010-2035-2581)

◎ 반디 주일학교 학생, 교사 모집

혼자서는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없는 반디 친구들
에게 반디 주일학교는 주일마다 찾아오는 놀이터
입니다. 반디 주일학교와 즐거운 추억을 쌓을
학생과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미사시간 : 매 주일 오전 10시 30분 / 소성전

문의 : 바오로비안네 교감 (010-7207-9295)

◎ 오늘은 교황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4. 6. 23)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3년 책정율	2023년 납부율
2,006	747 (37.2%)	709 (35.3%)	43.7%	42.3%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헌금 (6월 17일~23일)

곽선모	오천원	이성애	삼십만원
익명	오만원	익명	이십만원
김은순	삼만원	함영동	일만원
황정숙	일십만원	한인경	일십만원
한주연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12주일)

교무금	6,630,000원
주일헌금	5,722,650원
민족의화해와일치를위한 2차헌금	1,650,100원

입당 63 봉헌 216,210,511 성체 174,181,171 파견 200



주님, 저를 구하소서 당신을 높이 기리 나이다